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 인구기초통계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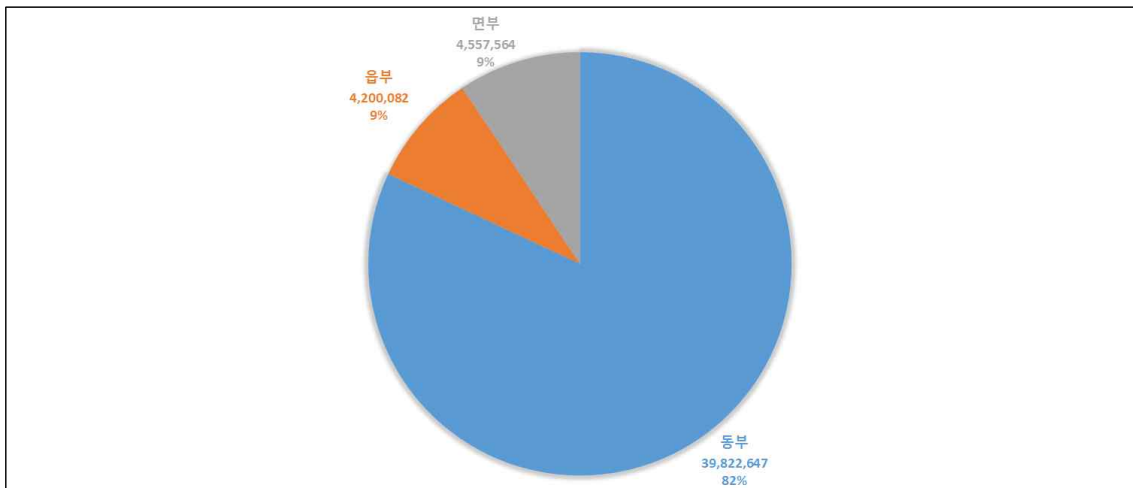
2015.6.12 | 강세진_새사연 이사 | wisemaninspace@daum.net

올해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는 해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국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법정통계조사로서 5년마다 시행된다. 아마 내년 하반기 즈음에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구체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념하여 새로운 통계가 발표되면 낡은 자료가 될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다시 돌아보고자 한다.

전국의 인구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총인구는 48,580,293인이다. 이 중에서 행정구역 상 동에 속하는 인구는 39,822,647인으로써 82%에 달한다. 아무래도 ‘○○동’이라고 하면 도시지역인 경우가 많으니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이만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읍에 거주하는 인구는 4,200,082인으로써 8.6%이며, 면에 거주하는 인구는 4,557,564인으로써 9.4%이다.

그림 1. 2010년 동, 읍, 면별 총인구(단위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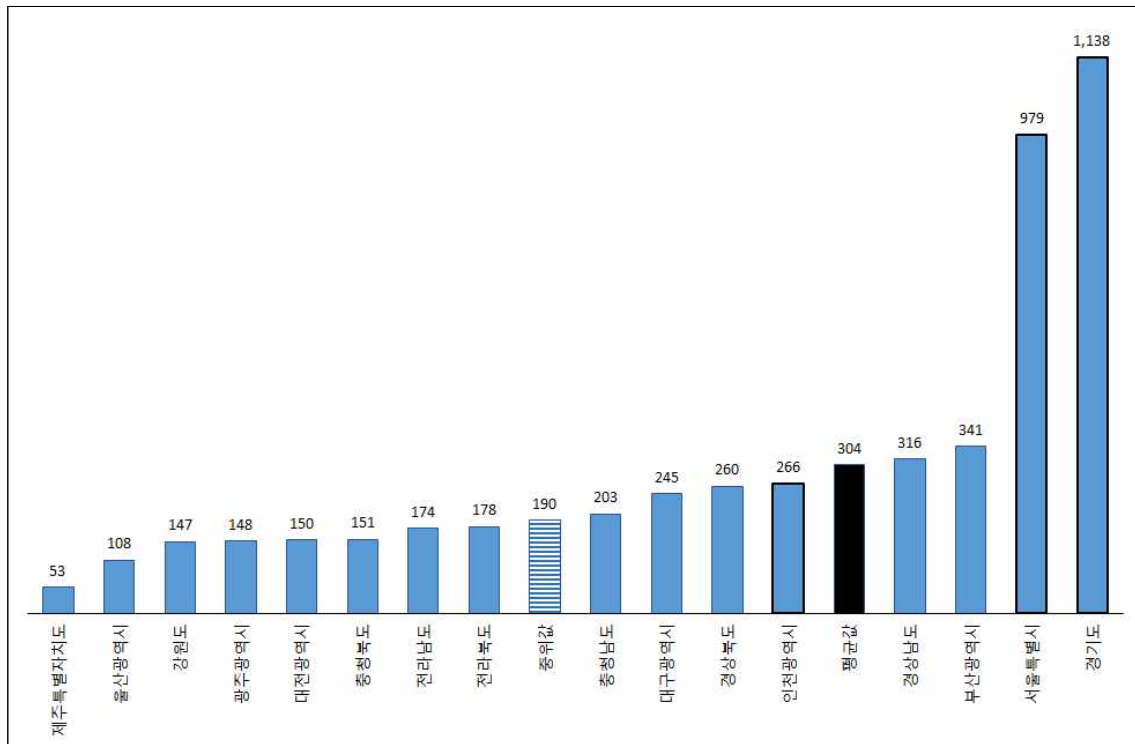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시도별 인구수

시도별로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138만 인으로써 가장 많고, 제주도가 53만 인으로써 가장 적다. 평균값은 304만 인이며 중위값은 190만 인이다. 경상남도, 부산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대체로 100~250만 인 사이의 분포를 보인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는 2,384만 인으로써 전체 인구의 49%에 달한다.

그림 2. 2010년 시도별 총인구(단위 : 만 인)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초지자체(시군구)별 인구수

기초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1,072천 인)를 비롯한 상위 10개 지자체는 창원시(1,058천 인), 성남시(950천 인), 고양시(905천 인), 용인시(857천 인), 부천시(853천 인), 안산시(729천 인), 청주시(667천 인), 전주시(650천 인), 송파구(647천 인) 등 대부분 수도권 및 지방의 인구 60만 인 이상 대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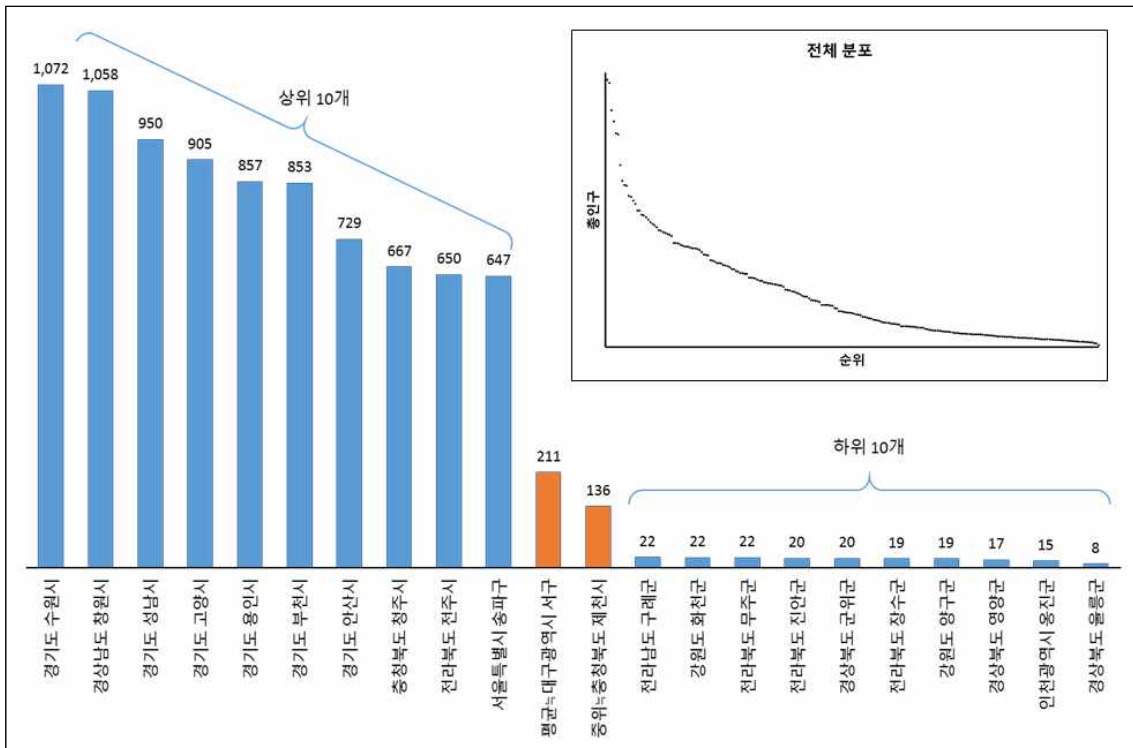
가장 인구가 적은 울릉군(8천 인)을 비롯한 하위 10개 지자체는 용진군(15천 인), 영양군(17천 인), 양구군(19천 인), 장수군(19천 인), 군위군(20천 인), 진안군(20천 인), 무주군(22천 인), 화천군(22천 인), 구례군(22천 인) 등으로써 대부분 도서·산림 지역의



인구 2만 인 내외의 지자체이다.

기초지자체별 인구의 중위(중간)값은 136천 인이며 제천시의 인구와 유사하며, 평균값은 211천 인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의 인구와 유사하다.

그림 3. 2010년 기초지자체별 총인구(단위 : 천 인)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밀도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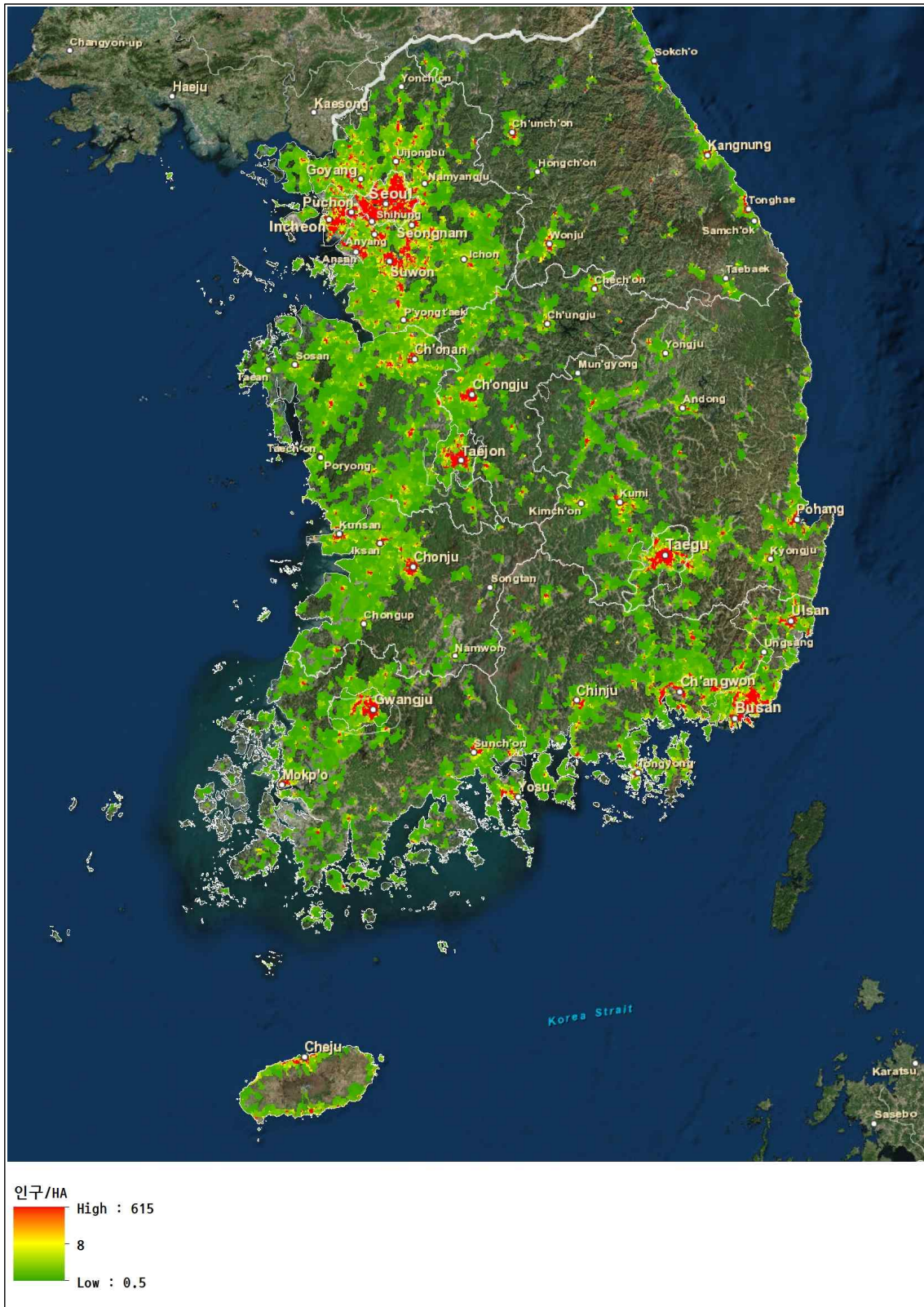
면적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행정구역의 총인구가 많다고 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1km² 당 인구수, ha 당 인구수 등으로 표현되는 인구밀도를 살펴보아야 해당지역의 인구가 도시지역처럼 조밀한지, 농촌지역처럼 분산되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¹⁾별로 분석한 인구밀도의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4),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에 인구밀집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지방의 경우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등을 중심으로 인구밀집지역이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가장 작은 통계구역 단위으로써 도시지역의 경우 대체로 인구수 300~500인 정도의 규모이다. 행정동보다도 작은 규모이므로 미시적·공간적인 통계분석의 단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림 4. 2010년 인구밀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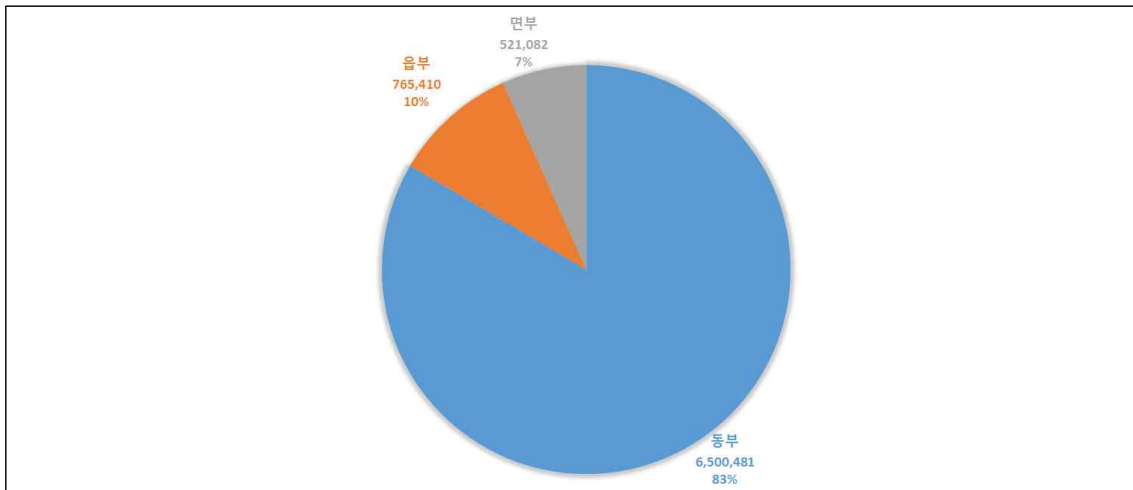
증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전국의 15세 미만 인구

전국의 15세 미만 인구는 7,786,973인으로써 전체 인구의 16%이다. 이 중에서 동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6,500,481인으로써 83.5%, 읍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765,410인으로써 9.8%, 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521,082인으로써 6.7%이다.

그림 5. 2010년 동, 읍, 면별 15세 미만 인구(단위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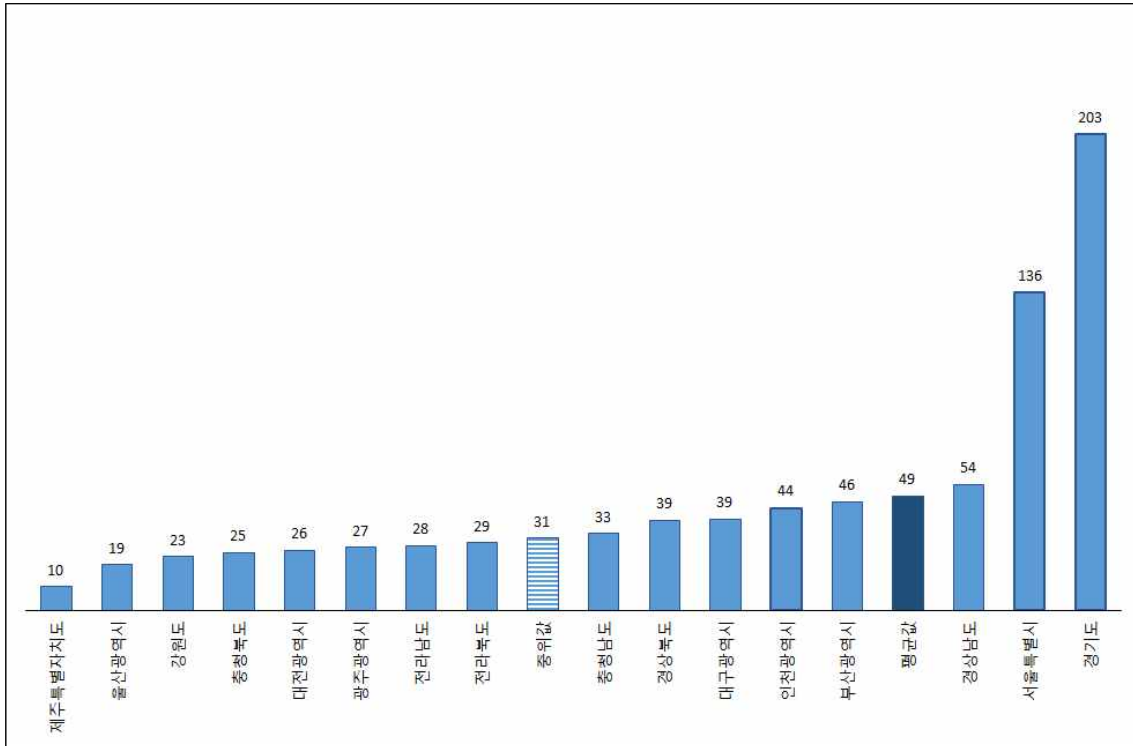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시도별 15세 미만 인구

시도별로 15세 미만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203만 인으로써 가장 많고, 제주도가 10만 인으로써 가장 적다. 평균값은 49만 인이며 중위값은 31만 인이다. 경상남도(54만 인)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모두 평균값 이하로써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 중위값 이하인 울산(19만 인), 강원도(23만 인), 충청북도(25만 인), 대전광역시(26만 인), 광주광역시(27만 인), 전라남도(28만 인), 전라북도(29만 인)의 경우 대체로 20~30만 인 수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중위값과 평균값 사이의 충청남도(33만 인), 경상북도(39만 인), 대구(39만 인), 인천(44만 인), 부산(46만 인) 등은 30~50만 인 수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15세 미만 인구는 382만 인으로써 전체 15세 미만 인구의 49%에 달한다.



그림 6. 2010년 시도별 15세 미만 인구(단위 : 만 인)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초지자체별 15세 미만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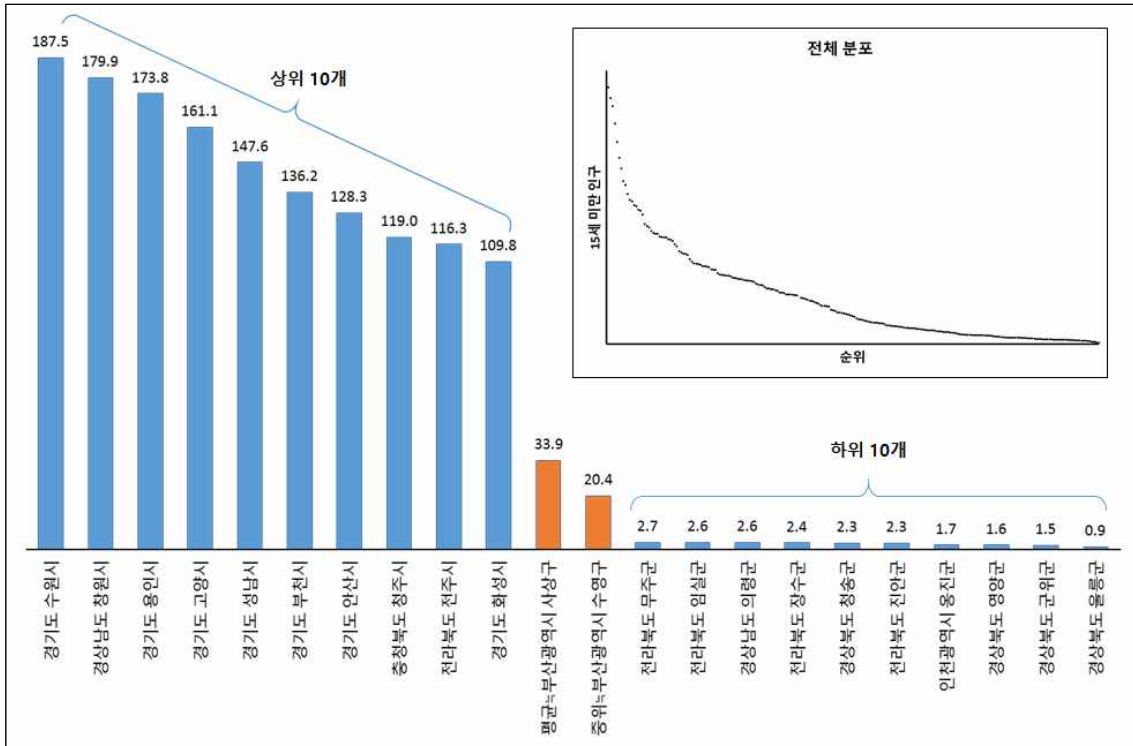
기초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가장 15세 미만 인구가 많은 수원시(187.5천 인)를 비롯한 상위 10개 지자체는 창원시(179.9천 인), 용인시(173.8천 인), 고양시(161.1천 인), 성남시(147.6천 인), 부천시(136.2천 인), 안산시(128.3천 인), 청주시(119.0천 인), 전주시(116.3천 인), 화성시(109.8천 인) 등 대부분 수도권 및 지방의 대도시이며 15세 미만 인구가 10만 인을 넘고 있다.

가장 15세 미만 인구가 적은 울릉군(0.9천 인)을 비롯한 하위 10개 지자체는 군위군(1.5천 인), 영양군(1.6천 인), 용진군(1.7천 인), 진안군(2.3천 인), 청송군(2.3천 인), 장수군(2.4천 인), 의령군(2.6천 인), 임실군(2.6천 인), 무주군(2.7천 인) 등으로써 대부분 도서·산림 지역이며 15세 미만 인구가 3천 인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별 15세 미만 인구의 중위값은 20.4천 인이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15세 미만 인구와 유사하며, 평균값은 33.9천 인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15세 미만 인구와 유사하다.

그림 7. 2010년 기초지자체별 15세 미만 인구(단위 : 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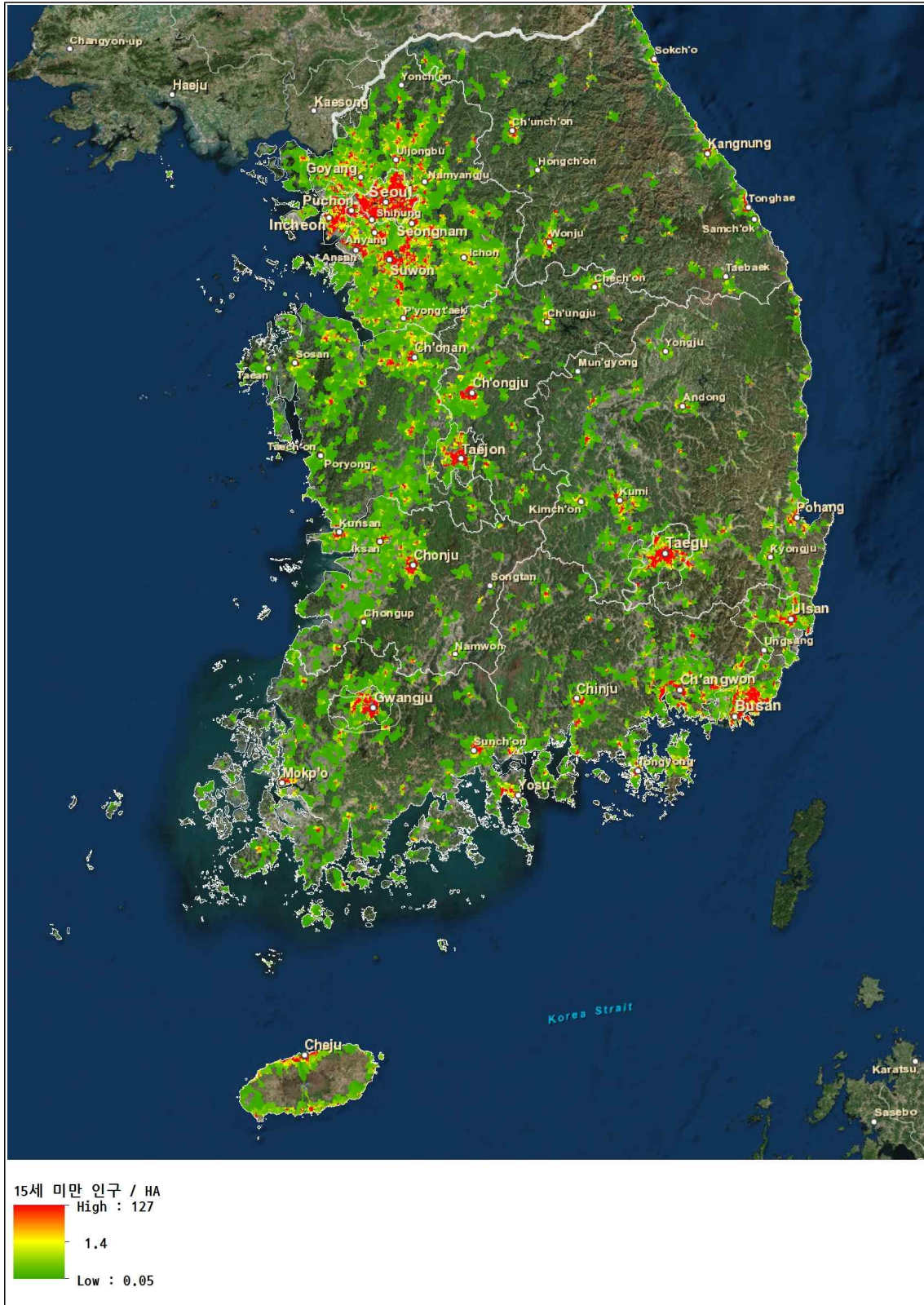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5세 미만 인구밀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별로 분석한 15세 미만 인구밀도의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8), 인구밀도가 높았던 지역에 15세 미만 인구도 밀집되어 있는 경향이 보인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에 15세 미만 인구의 밀집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지방의 경우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등을 중심으로 15세 미만 인구의 밀집지역이 펼쳐져 있다.



그림 8. 2010년 15세 미만 인구밀도 분포도



※ 집계구별 15세 미만 인구수를 바탕으로 래스터(500m×500m) 분석
자료 :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http://sgis.kost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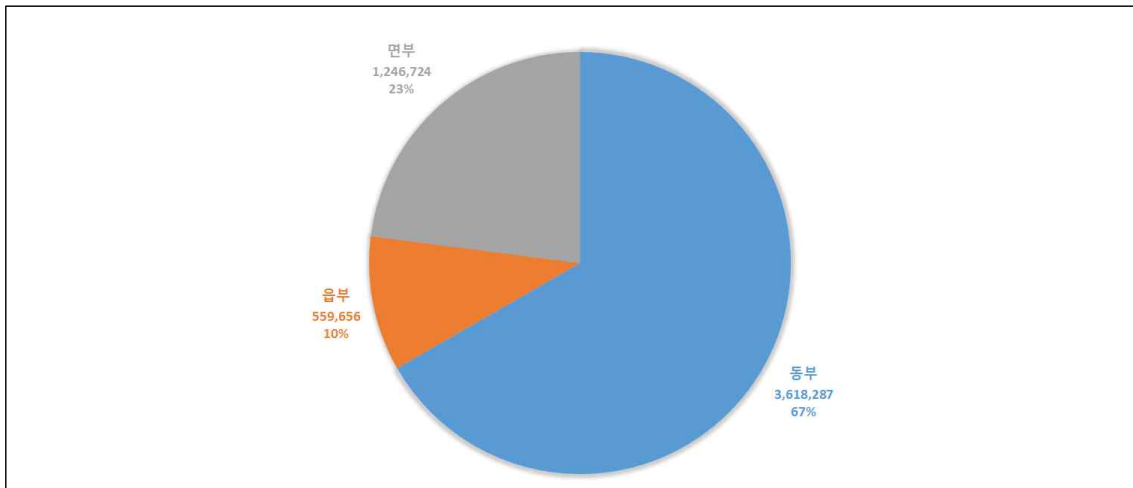
증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5,424,667인으로써 전체 인구의 11%이다. 이 중에서 동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3,618,287인으로써 66.7%, 읍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559,656인으로써 10.3%, 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1,246,724인으로써 23.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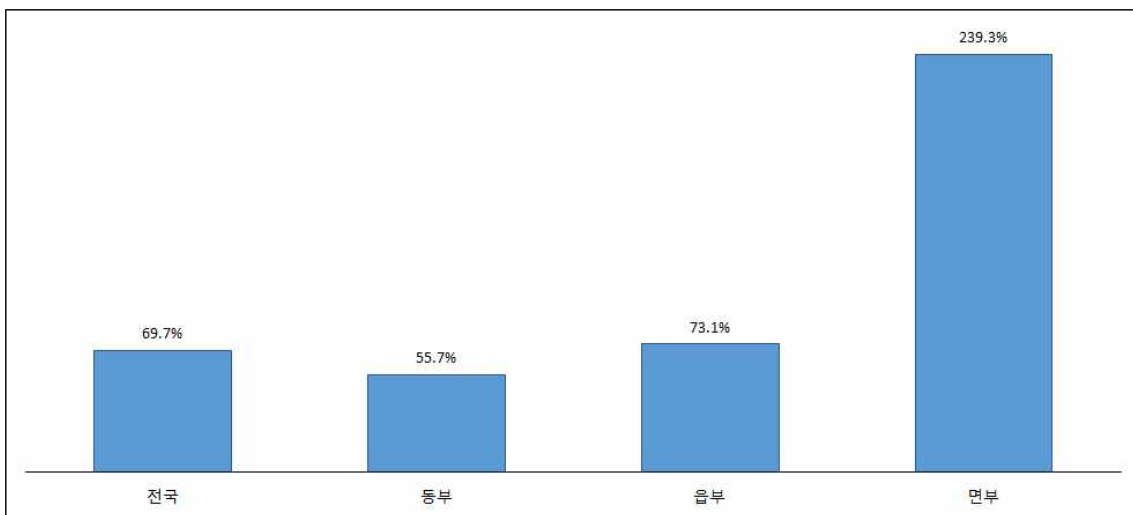
그림 9. 2010년 동, 읍, 면별 65세 이상 인구(단위 : 인)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한편, 65세 이상 인구수를 15세 미만 인구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인 고령화지수는 전국 기준으로 69.7%, 동지역 55.7%, 읍지역 73.1%, 면지역 239.5%이다. 즉 면지역의 경우 노인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2배를 넘는다.

그림 10. 2010년 노령화지수(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15세 미만 인구 × 100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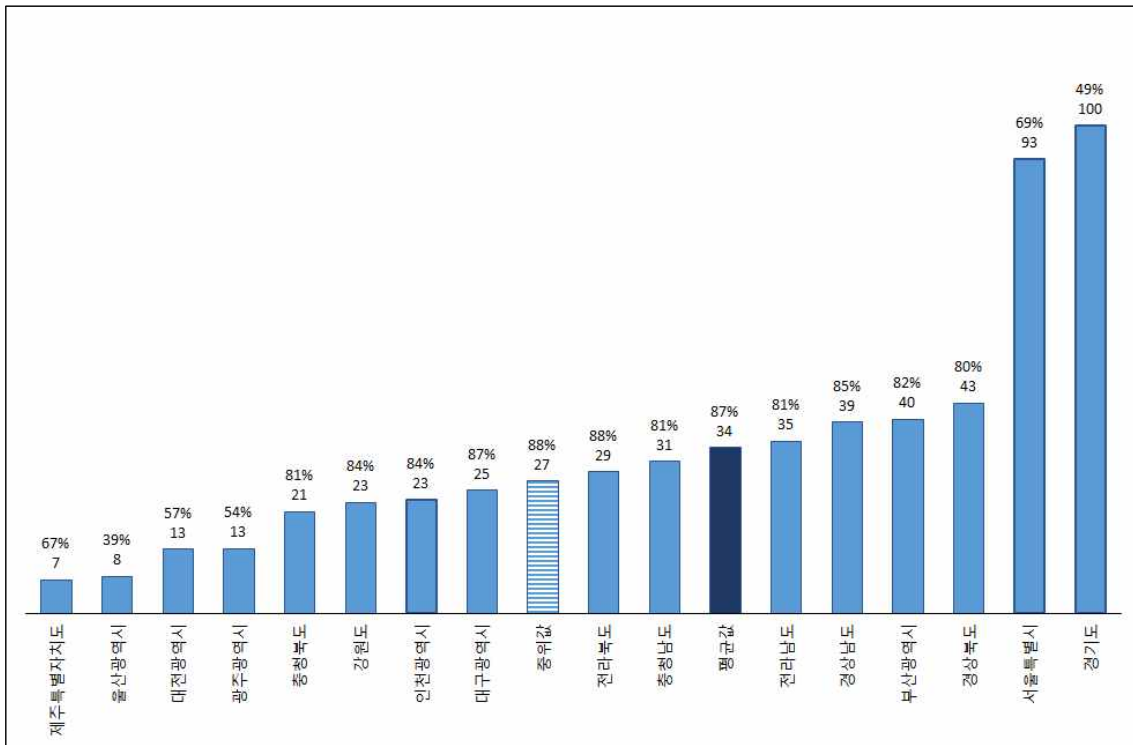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

시도별로 65세 이상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00만 인으로써 가장 많고, 제주도가 7만 인으로써 가장 적다. 평균값은 34만 인이며 중위값은 27만 인이다. 중위값 이하인 울산(8만 인), 대전(13만 인), 광주(13만 인), 충청북도(21만 인), 강원도(23만 인), 인천(23만 인), 대구(25만 인)의 경우 대체로 10~25만 인 수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중위값과 평균값 사이의 전라북도(29만 인), 충청남도(31만 인)는 30만 인 수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평균값 이상인 지역인 전라남도(35만 인), 경상남도(39만 인), 부산(40만 인), 경상북도(43만 인) 등은 35~40만 인 수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65세 이상 인구는 216만 인으로써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36%이다.

한편 노령화지수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곳은 88%의 전라북도이며 가장 낮은 곳은 39%의 울산광역시이다. 노령화지수가 낮은 편인 제주, 울산, 대전, 광주,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의 경우 대체로 80~88%의 노령화지수를 보이고 있다.

그림 11. 2010년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 및 노령화지수(단위 : 만 인,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초지자체별 65세 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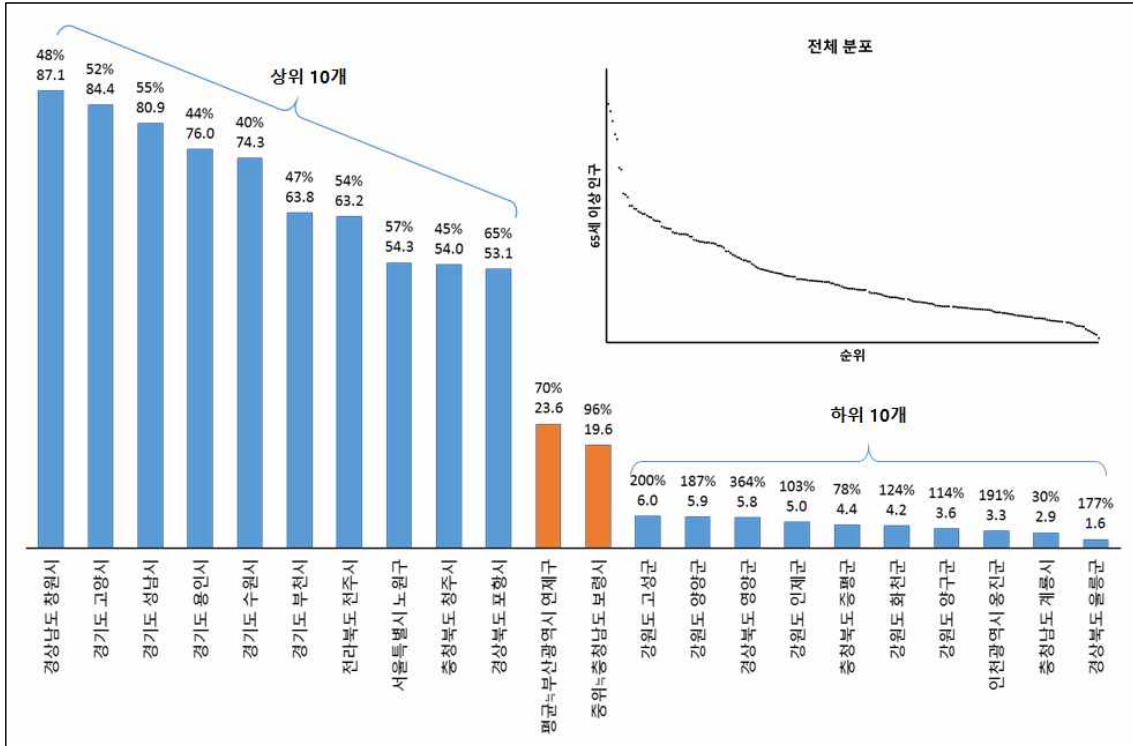
기초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가장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창원시(87.1천 인)를 비롯한 상위 10개 지자체는 고양시(84.4천 인), 성남시(80.9천 인), 용인시(76.0천 인), 수원시(74.3천 인), 부천시(63.8천 인), 전주시(63.2천 인), 노원구(54.3천 인), 청주시(54.0천 인), 포항시(53.1천 인) 등 대부분 수도권 및 지방의 대도시이며 5~9만 인 수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들 지역의 노령화지수는 40~60% 수준으로써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 비해 15세 미만의 유소년인구의 비중이 높다. 즉, 인구밀집지역의 특성상 노인인구도 많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65세 이상 인구가 적은 울릉군(1.6천 인)을 비롯한 하위 10개 지자체는 계룡시(2.9천 인), 용진군(3.3천 인), 양구군(3.6천 인), 화천군(4.2천 인), 증평군(4.4천 인), 인제군(5.0천 인), 영양군(5.8천 인), 양양군(5.9천 인), 고성군(6.0천 인) 등으로써 대부분 내륙 산림 지역이다. 한편 이들 지역 중 계룡시와 증평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노령화지수가 100% 이상이다. 즉, 이들 지역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절대값이 낮은 것이며 15세 미만 인구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큰 특성을 지닌 지역들이다.

기초지자체별 65세 이상 인구의 중위값은 19.6천 인이며 충청남도 보령시의 65세 이상 인구와 유사하며, 평균값은 23.6천 인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65세 이상 인구와 유사하다.



그림 12. 2010년 기초지자체별 65세 이상 인구(단위 : 천 인)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65세 이상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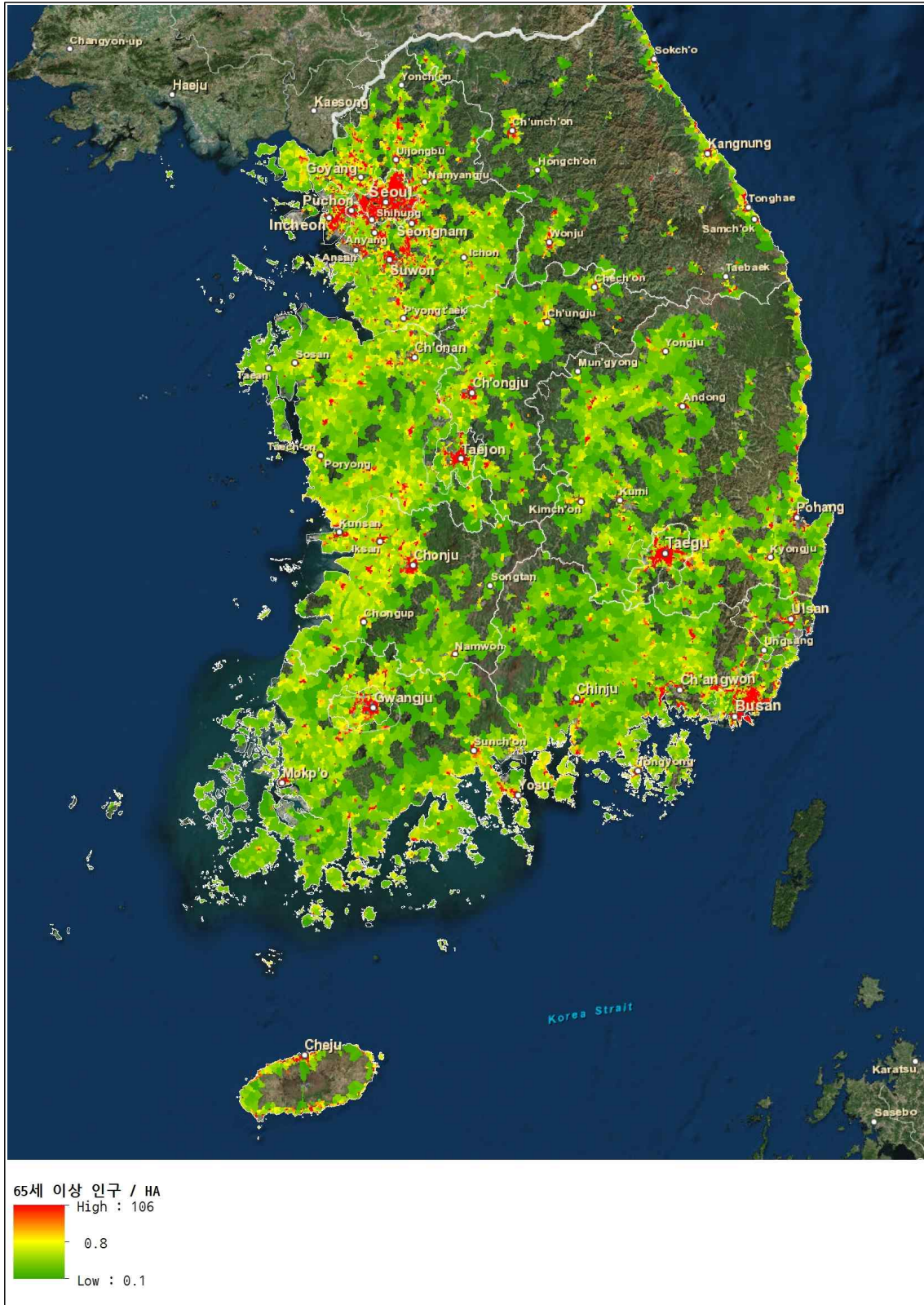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별로 분석한 65세 이상 인구밀도의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13), 인구밀도가 높았던 지역에 65세 이상 인구도 밀집되어 있는 경향이 보인다. 하지만 15세 미만 인구에 비해 좀 더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내륙의 산촌지역에서도 밀집지들이 관찰된다.

한편 노령화지수의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14), 인구밀집지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달리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의 산촌지역의 경우 극심한 노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

2) 노령화지수의 최대치가 6750%에 이른다는 것은 65세 이상 인구 6750인 당 15세 미만 인구는 1인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그림 14. 2010년 65세 이상 인구밀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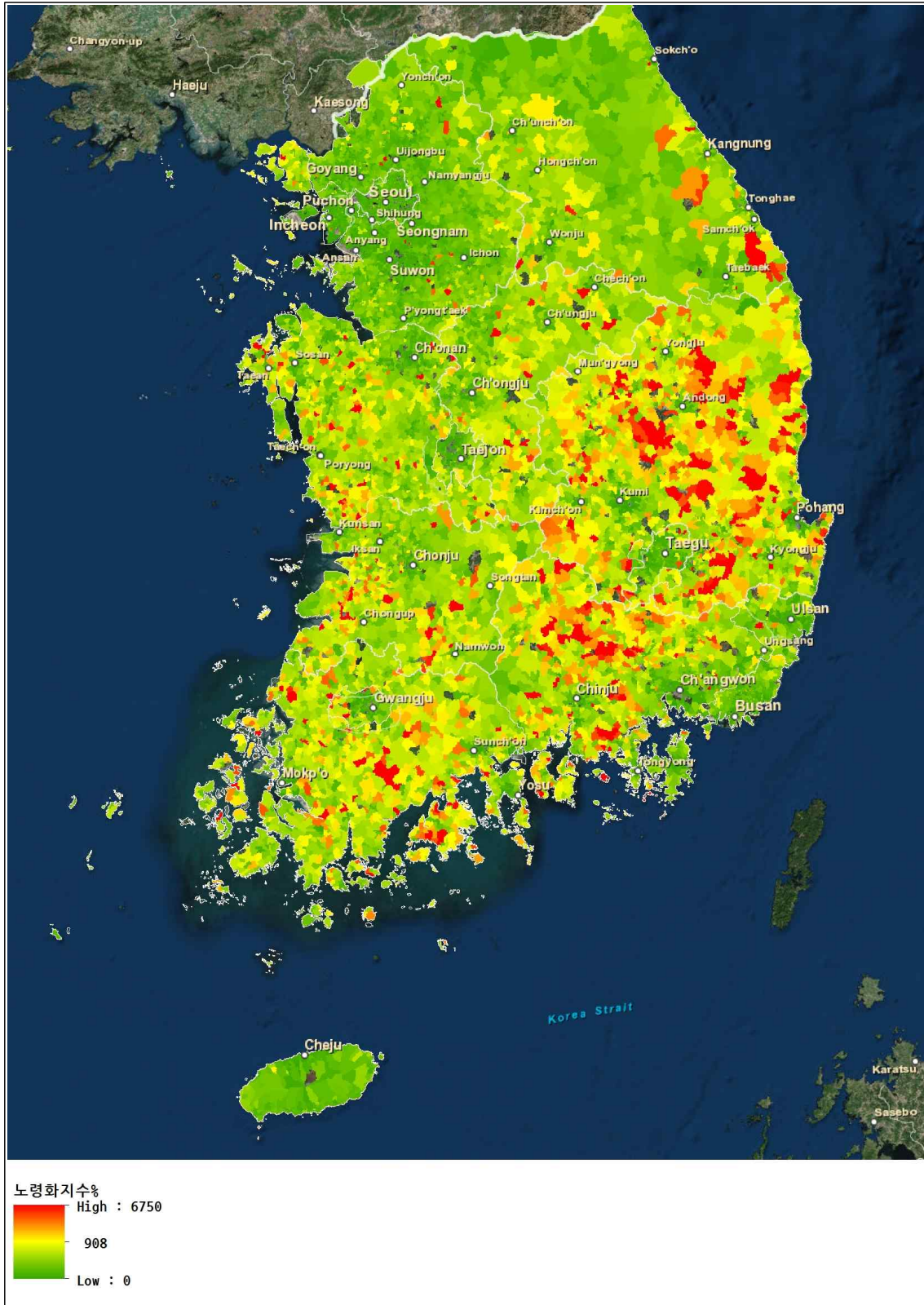


※ 집계구별 60세 이상 인구수를 바탕으로 래스터(500m×500m) 분석
자료 :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http://sgis.kostat.go.kr>)

증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그림 15. 2010년 노령화지수 분포도



※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증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6월 12일 현재

아젠다	발간 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
고용,노동	4/28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진남영
고용,노동	5/18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김수현
고용,노동	5/21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이정아
주거	6/5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 새로운 주체의 발견과 청년의 사회혁신	민달팽이 유니온
주거	6/8	주거문제의 혁신, 해답은 '현장' 에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
지역,사회	6/12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① : 인구기초통계	강세진